

이준석측 '비대위 전환' 반발 고조... '주호영 중재' 가능할까

17일 심리 앞두고 전방위 여론전 주-이 물밑 대화 실효성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서 11일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할 이번 전국 의결 효력정지처분에는 최종적으로 책임당원 1558명이 신청인으로 참여했다고 소송 대리를 맡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힌 가운데 이 전 대표의 해임을 무효화하고 비대위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며 전방위적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물밑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권여당 당권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법적 공방이 확산하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우려다.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3선의 조해진 의원은 오전 MBC·YTN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 "당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자동 해임됐다고 몰아가는 것"이라며 "본인 대표직은 유지되고 당원권 정지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 대표와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자기 전당대회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장 주 위원장과 이 대표 사이 만남을 통한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 위원장은 전날까지 "(이 대표를) 다각도로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취임 이후 이틀간 비대위원·당직 인선 준비와 함께 수해 복구 작업 등에 일정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물밑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해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복구 작업에 총동원된 상태다. 작업은 오후 3~4시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이 이 대

표와의 만남 계획에 대해 묻자 "(수해복구 활동과) 관련된 것만 질문해달라"며 질문을 잘랐다. 그러면서 복구작업을 마친 후에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마련된 수해 피해 사망자 빈소에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에서도 주 위원장과 이 대표 사이 문제 해결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들의 만남)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가처분 신청도 거두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 대표가) 요즘 내뱉는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바"라고 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어 "(전국위 등을 통해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는 면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졌다"면서도 "(대중은 이 대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제거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동정심 같은 지지여론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라며 자기 전대 국면에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일부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상위권에 오른 것에 빚대어 이 대표 측이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주변에서도 17일 심리까지 주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과 구태여 접촉해서는 선명성을 희석하는 결과 외에는 얻을 게 없을뿐더러, 나아가서는 '정치적 흥정'을 한다는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기에 주 위원장은 당면한 비대위원·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관련 준비에 매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대 당원 경선

이병훈 국회의원·당원 최희용 후보 등록...21일 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복수출마로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국회의원인 이병훈(광주 동남) 의원과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에서 단일 후보로 내세운 최희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가 시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광주시당을 당원 중심의 시당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시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의 저조한 투표율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에도 패배한 실망의 표현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광주시민의 뜨거운 열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용 전 대표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에게 민주당을 돌려드리겠다"며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광주시당을 만들겠다"며 "당 내외 개혁 과제들을 시민과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 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당위원장 선거는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대한 이병훈 의원(동남)과 평당원 신분인 최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은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 간의 경선이나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돼왔으나, 최근 '당원이 주도하는 민주정치'를 표방한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가 출범하고 첫 후보로 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선이 현실화됐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시당 위원장 경선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리당원 투표는 18~20일, 온라인과 ARS(자동응답) 투표로 진행된다.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현장 투표를 거쳐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최권원 기자 cki@

민주 당권 경쟁 '박용진-강훈식 단일화' 성사될까

박, 촉구 나섰지만 강 냉랭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어대명' (여차피 대표는 이대명)으로 흘러가면서 후보 지지자들의 단일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위를 달리는 박용진 후보가 11일 '97그룹(90년대 후반·70년대생)'으로 묶이는 3위 강훈식 후보를 향해 다시금 단일화를 촉구하며 불씨 살렸다. 반면 강 후보가 이에 적극적이지 않고, 선두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큰 터라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칭해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박 후보가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사실상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면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반란점을 도는 만큼, 더 늦어지면 반전의 계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경선 첫 주에 합산 74.15%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가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1차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우세를 이어간다면 대세를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여론조사 결과는 14일 발표된다.

아울러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단일화를 통해 '경선 후반전'의 역전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강 후보는 호응하지 않

는 모습이다.

강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훈식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데, 그 활주로에 단일화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며 "지금 시점의 단일화 논의가 명분, 파괴력, 감동 어떤 게 있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박 후보의 촉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는 "냉정하게 말하면 저와 박 후보가 지난 주말 얻은 득표는 권리당원 전체의 1%가 안 된다"며 "아직 60% 넘는 권리당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투표를 자체를 높여서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도전 송갑석 "호남정치력 복원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출마한 유일한 비수도권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인 11일 "호남 단일후보인 저를 통해 호남 정신을 민주당 지도부에 새겨주고 호남 정치력을 복원해 달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심장 호남은 2회 연속 최고위원을 배출하는데 실패했다"며 "이번 전당대회도 계파 없는 비수도권 후보, 호남 단일후보에게 기폭제 선거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 번의 커다란 패배를 겪은 민주당은 분명한 위기이며, 승리를 위해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필요한 것은 진

정한 호남정신"이라 강조하고 호남 단일후보의 지도부 진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 정신은 부당함 공격에 맞서 싸우고, 당이 민심과 멀어질 때 멈춰 세우고, 주저할 때 북돋아 주고, 엇나갈 때 과감히 할 말을 하는 정신"이라며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호남의 정신이야말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8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광주, 전남, 전북 모두를 지역구라 여기고 뛰었다"며 "호남 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는 '호남 최초의 초광역 경제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